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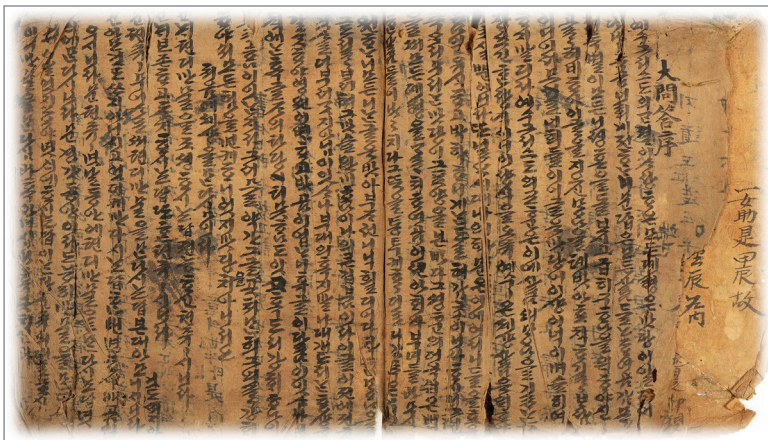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비(非)공식 교리문답서, 『성교요리』 필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다 (1)

- ‘복자 윤봉문 요셉의 위장 교리서’로 알려진 책은 사실 『성교요리』 필사본 중 하나이다 -

지난 2026년 2월 7일(토)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 열린 ‘한국교회사연구자모임’에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김유진 수녀님이 “복자 윤봉문 요셉의 위장 교리서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김유진 수녀님이 소개한 자료는 윤봉문 복자의 후손이 1978년경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하여 오륜대한국순교자 박물관에 소장되어온 필사본 책자입니다. 제목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이 책은 거제도의 회장으로 진주에서 순교한 복자 윤봉문(1852~1888)이 ‘저술’한 교리문답서로 알려졌고, 원래 ‘소학언해’를 필사한 책자의 빈 면에 교리 내용을 적어 넣어 겉으로는 소학언해인 척 ‘위장’했다고 하여 ‘위장교리서’로 불리었습니다. ‘복자 윤봉문이 저술한 위장교리서’라는 내용은 이 책자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이나 사료 비판을 거치지 않은 채 ‘통설’처럼 알려졌습니다. [『가톨릭신문』 2940호(2015.4.19.), 12면에도 소개됨]

위의 모임에 참석한 필자는 김유진 수녀님의 발표를 들었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필자 질문의 핵심은 ‘윤봉문이 저술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당시 한국 신자가 단독으로 저술했다고보다는 다른 교회서적(중국의 한문서적의 번역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책의 제목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점[서문에 ‘大問答序’라는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대문답’이 제목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정됨]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김유진 수녀님도 동의하셨고,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복자 윤봉문 요셉의 위장 교리서’로 알려진 『성교요리』 필사본 - ‘大問答序’와 ‘처음에 세상을 온다심이라’ [왼쪽]

또한, 필자와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누군가가 소학언해 책자 중 종이의 접힌 장을 뜯어서 그 면에 교리서 내용을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위장’ 목적으로 소학언해와 교리문답 내용

을 번갈아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필사된 소학언해 책의 이면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교리문답서를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위장교리서’라는 통설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유진 수녀님의 발표는 ‘복자 윤봉문 요셉의 위장 교리서’라고 알려진 책자[윤봉문 후손이 기증한 교리문답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기초적인 서지학 연구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필자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편찬·간행된 교리문답서들을 검색하여 비슷한 서적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교요리』, 또는 『聖敎要理大問答』이라는 제목의 필사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교회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필사본의 한문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 교회서적들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聖敎要理(성교요리)』[프랑스 국립도서관(BnF) 소장, 도서분류번호 Chinois-7246]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윤봉문 후손이 기증한 서적이 『성교요리』라는 한글 교리문답서의 필사본이었고, 한문서적 『聖敎要理』의 번역본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호와 다음 호의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교요리』의 필사본이 서울과 지방 여러 곳에서 확인되다 - 현재 소장처와 책별 특이 사항

필자가 ‘윤봉문 후손 기증본’과 다른 서적들을 비교할 때 서문과 차례, 본문 내용 등을 대조하였습니다. 필자에게는 ‘기증본’의 원본[스캔본]이 없었지만, 김유진 수녀님의 발표문 부록에 실린 교리문답서 판독·활자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확인한 것은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스캔하여 보관해온 『聖敎要理 諺解』(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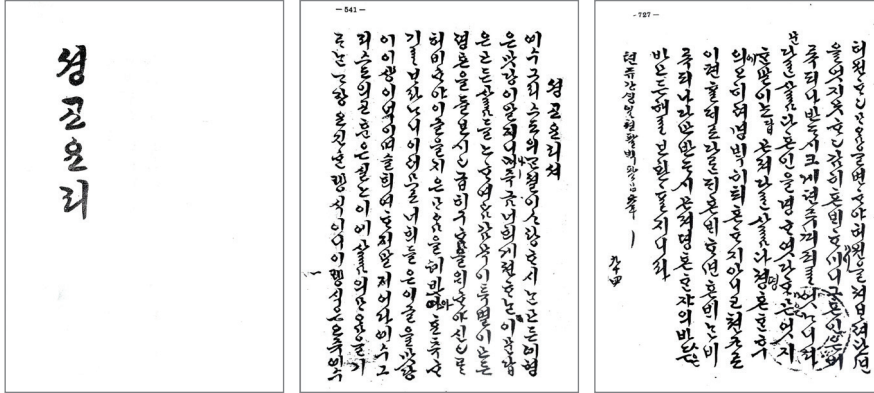


『聖敎要理 諺解』(1898년 필사)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 표지, 서문, 맨 마지막장 [왼쪽부터]

‘기증본’과 ‘호남교회사연구소본’을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이 사랑”[현대식 표기-필자]으로 시작되는 서문 첫 문장과 “모든 해를 보환할지니라”로 끝나는 마지막 문장까지 편제와 내용이 사실상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기증본’에서는 “모든 해를 보환할지니라”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문답 조항들이 발체되어 다시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부분에 대해 김유진 수녀님은 ‘보완문답’이라고 구분했습니다.]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본을 통해 이 책의 제목이 ‘성교요리’라는 점[서문 제목도 ‘성교요리 서’로 나옴]과 ‘언해’ 즉 한글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맨 끝에는 “무술(1898) 십이월 십칠일 필(筆 또는 畢로 추정) 갈담”, “배 신부”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1898년 12월 17일은 필사가

완료된 날짜로 보이고, 갈담은 현재 화성시 봉담읍의 예전 지명이며, 배 신부, 즉 페네(Peynet, 裴嘉綠, 1873~1948) 신부가 책의 주인으로 보입니다. 1898년 당시 페네 신부는 경기 왕림본당 주임 신부로 있었고, 이때 전문 필사자가 ‘성교요리’를 필사해서 페네 신부가 소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왕림본당에서 필사된 이 책이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하게 된 것은 아마도 페네 신부가 김제 수류본당 주임으로 1900~1920년까지 재직할 때 남긴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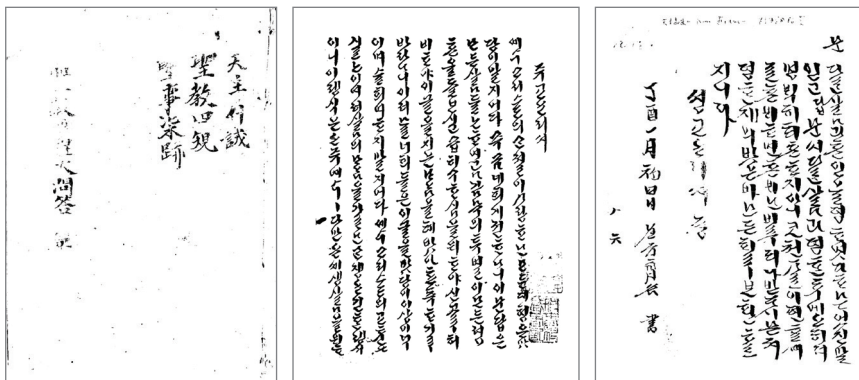


『성교요리』(1886년 필사)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표지, 서문, 맨 마지막장 [왼쪽부터]

필사는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도서에 이어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된 영인본 자료집을 검색했고, 1985년에 간행된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 제2권 『성교요리문답·진교절요·성교요리·성교빅문답』에 실린 ‘성교요리’(541~728쪽)가 ‘윤봉문 후손 기증본’, 『聖敎要理 諺解』와 같은 내용의 필사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교요리’의 맨 마지막 장[94a]에 적힌 “연주강심 일천팔백팔십六年”을 보면, 이 책이 1886년에 필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흥균이 작성한 ‘해제’에는, 예수회 소속 중국 파견 선교사제 로벨리(Lobelli, 1610~1683, 陸安徳)가 저술한 한문본 『聖敎要理』의 번역본이고,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의 한글필사본에는 ‘1876년 5월 13일자 블랑 주교의 서명’이 적혀 있다고 나옵니다. ‘성교요리’ 필사본이 같은 제목의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1876년 5월 이전에 번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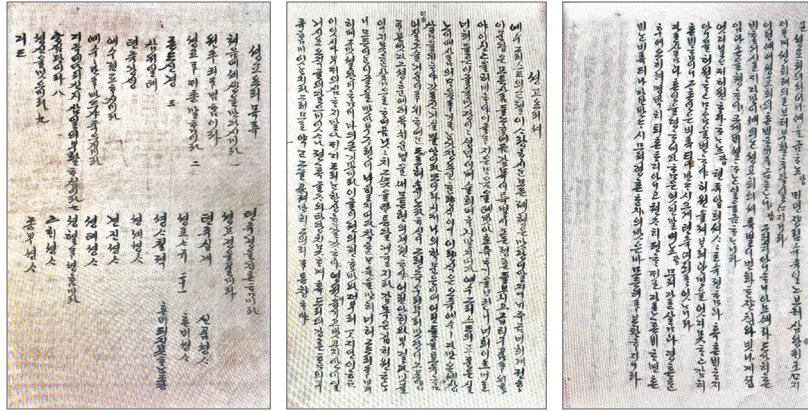
필사는 ‘성교요리’ 한글 필사본을 계속해서 찾았고,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2개의 필사본을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에 소장된 『聖敎要理大問答』과 은이성지 소장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구축한 『성교요리』가 그것입니다.



『聖敎要理大問答』(1897년 필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표지, 서문, 맨 마지막장 [왼쪽부터]

『聖教要理大問答』의 서문에는 특이하게 “쥬교요리 셔”라고 쓰여 있지만 서문 내용은 ‘성교요리’ 필사본과 동일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성교요리셔 종”, “丁酉 一月初四日 金方齊各 書”가 써여져 있습니다. 1897년 1월 4일 김 프란치스코가 필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사자 김 프란치스코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이성지 소장 『성교요리』에는 필사 연도나 필사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겉표지의 제목 글씨가 거의 안보입니다. 대신 다른 필사본에는 없는 목차 “성교요리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성교요리』(필사연도 미상) [은이성지 소장] - 목록, 서문, 맨 마지막장 [왼쪽부터]

이와 같이 필사는 ‘윤봉문 후손 기증본’과 동일한 서적으로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聖教要理 諺解』,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성교요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聖教要理大問答』, 은이성지 소장 『성교요리』 등 4종 서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사이트 ‘도서관’을 검색해보면 『성교요리』라는 제목의 책자가 7권 정도[위의 자료집에 영인된 서적 포함됨] 나오는데, 앞으로 직접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성교요리’ 필사본이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필사되거나 소장되었다는 점은 비록 대목구장의 감준을 받아 공식 교회서적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공식 교리문답서인 『성교요리문답』을 보완하고 좀 더 깊은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 신부[회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8호, 3월 31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